

7.15 총파업을 앞두고
충남지부 원청교섭 투쟁사업장
조합원 동지들께 드립니다.

지긋지긋한 하청인생 총파업으로 바꿨시다

더 이상 빼앗기고 희생당하지 맙시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오랜 역사를 관통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내세웠습니다.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직접고용 대신 하청파견 노동자를 늘렸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현장에 걸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터에서 같은 일을 해도 제일 먼저 짚리고 제일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권한을 가진 진짜사장 원청은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싸우고 연대하고 돌파해왔습니다. 2000년대부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은 원청이다"라는 외쳤고 자동차, 제철소,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징계해고와 손배가압류, 노조말살 탄압에서도 노동자들은 현장과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원청의 책임을 묻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들도 우리만큼 사활을 걸었습니다

올해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차별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하여 쟁취한 역사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원청 자본은 지금도 순순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본 역시 우리만큼 사활을 걸고 저항합니다. 불법파견 판결이 나와도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또 다른 하청회사인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고용으로 포장하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원청들은 법적 절차인 교섭요구사실 공고조차 거부하고, 국내 최고의 로펌들을 앞세워 꼼수를 부리고 시간 지연을 합니다. 원청은 생산량, 단가, 노동강도, 인력규모, 안전 등 모든 부분을 결정합니다. 저들이 교섭을 거부한다는 것은 권력은 누리되 여전히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자본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자본은 법위에 군림하고 정부는 방치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에 나와 책임을 지라는 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차별을 없애고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원청의 책임회피 구조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절박합니다. 우리는 잃을 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압도적 쟁의결의! 분노를 조직합시다

원청교섭은 특수한 소수 몇몇 사업장의 현안이 아닙니다. 금속노조에 17,000명 달하는 원청교섭 투쟁 조합원의 목표이고, 전국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래가 걸린 과제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원청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은 굳어지고 확대되고 대물림될 것입니다. 때문에 원청교섭은 낡은 틀을 깨고 다른 세상을 만드는 시발점입니다. 한국 사회의 굳어진 차별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역사는 그냥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배 열사들과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눈물로 싸워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의 우리들의 원청교섭 투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청교섭을 앞두고 험난한 길이 예상했고, 주저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싸웠고,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동지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7.15 원청교섭 총파업으로 나갑시다. 충남에서 전국의 모든 하청·자회사 공동총파업을 선봉에서 조직합시다. 금속노조 깃발 아래 올해를 원청교섭 쟁취 원년으로 만듭시다. 내년은 늦습니다. 올해 싸워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본에게 시간을 주지 맙시다. 싸워야 할 때 싸우는 민주노조의 전통을 복원합시다.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만듭시다. 노동자의 힘은 현장을 멈춰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뿐입니다.

가자! 7.15 총파업!
평등세상을 위해!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원청교섭 투쟁본부 본부장

이상호

